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July 16, 2015 Vol. 491

## 임현수 목사 석방하라

LA 지역 연합 기도회

“석방 및 송환을 위한 호소문” 발표

LA에서 임현수 목사 송환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12일 KCCC 회관에서 열린 “임현수 목사의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을 위한 LA 지역 연합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임 목사와 가족, 토론토 큰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편, UN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임 목사는 1월 31일 북한에 억류된 이후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조현영 목사(남가주큰빛교회)는 “지난 4월에 임 목사를 위한 기도회를 연 이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답답하다. 그가 왜 억류되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설교한 이백호 목사는 “임 목사가 고난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KCCC 간사 시절, 당시 고등학생이던 임 목사를 신앙으로 지도했다는 이 목사는 “살든지 죽든지, 내 친구이자 제자, 동역자인 임 목사가 순교한다면 그것도 자랑스러울 것”이라며 “우리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을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린다”고 했다.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는 임 목사 억류 직

전 LA에서 그와 나눴던 대화들을 소개한 후 “이번 임 목사 사건으로 인해 미주 지역의 북한 사역이 정체, 퇴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은 강순영 목사(JAMA 대표)가 북한 및 통일 한국을 위해, 강성봉 회장(LA나사렛형제들)이 임 목사와 가족을 위해, 최형호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가 큰빛교회를 위해, 김영렬 목사(가주은혜교회)가 캐나다 정부 및 UN, 미디어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임현수 목사 석방 및 송환을 위한 호소문”을 LA 지역 기독교 단체와 언론기관, 목회자 명의로 발표했으며 이를 영어로 번역해 UN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 호소문에서는 임 목사가 110여 차례 방북해 북한의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왔다고 설명한 후 1. 북한 정부는 북한 사람들을 도와 준 임 목사를 속히 석방해 가족과 교회로 돌려 보내라, 2. 캐나다 정부는 강제로 억류된 캐나다 시민 임 목사가 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오도록 힘써 달라, 3. UN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운 임 목사가 캐나다로 송환되는 일을 힘써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이날 임현수 목사 송환 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이 본격적인 기도회에 앞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

## 이민교회 네트워크 구축,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인터뷰]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최낙신 신임 대표회장

최근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기총) 제17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최낙신 목사(잔스크리한인교회 원로목사)를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최낙신 회장은 “각 목회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전국에 125여 개의 교회 협의회가 있다. 가능하면 모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 지역 교협 회장들의 목소리를 듣고, 중요한 시대의 흐름과 목회의 방향을 찾아서 표준이 될 만한 지침을 제시하려 한다. 이민교회들이 같은 소리를 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공유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돋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지난 16대 미기총의 주요활동은 강력한 기도운동

교회일치 및 협력

정체성 확립에

전력 다할 것

전국 125개 교협

네트워크 형성해

표준 지침 제공



최낙신 신임 대표회장(좌)과 한기홍 전임 대표회장(우)

첫째 미주 한인교계의 일치, 협력, 회합, 선교, 봉사 등의 연합사업 추진, 둘째 한인교회의 정체성 확립, 셋째 이민목회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 넷째 교계의 새로운 지도자 양성 연구, 다섯째 세계 선교정책과 지역사회 봉사 연구 및 방향 제시, 여섯째 회원 상호간 친목과 원로 목회자 노후 대책 연구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일부 교단과 정치, 사법권의 결정이라는 것이 결국 대표자들의 결정인데 소수인의 인권을 주장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인본주의적 생각에 이끌려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세월이 간다고 변하지 않는다. 애틀랜타에서 화요기도회가 한 달에 두 번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영 기자

## 한인교회 동성결혼 소송 대책있나

연방대법원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된 이래 교계에서는 동성결혼과 관련된 소송이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대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기주 교계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태평양법률협회(PJI)가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 보호 긴급설명회>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13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협회의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가 직접 강의를 맡

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그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안겨준다.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정도를 넘어 이것을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했다”고 밝힌 뒤 “이 판결은 개인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성관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기에 향후 일부다처, 중혼, 근친상간 등의 가능성도 열고 있다”고 우려했다.

→ 3면에 관련기사

을 이어가면서 교회적 네트워크 구성에 힘쓰겠다. 미기총의 주요 목적은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설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보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겐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실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213) 380-1100 Cell:(213) 700-6989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Assistance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놀워한인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함께 임직식을 거행했다.

## 놀워한인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

허귀암 목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동역자 되길”

놀워한인교회(담임 허귀암 목사)가 지난 12일 창립 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임직예배를 드렸다. 허귀암 목사의 사회로 1부 예배와 2부 임직식, 3부 축하 및 권면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내빈과 성도들이 참석했다.

말씀을 전한 허귀암 목사는 고전 3장 5-9절을 본문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임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역자로 삼으신 귀한 섬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임직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김병호 안수집사가 장로로, 김진순 성도가 명예권사로 각각 임직하고, 허귀암 목사와 안수위원들이 함께 축복기도 후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다.

권면을 전한 김영대 목사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과 성실함을 가지고 섬길 것”을 권면했다. 민승기 목사(사생명갈보리교회)는 “교회 항존직은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나 더욱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며 “늘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봉사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다.

김병호 장로는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하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임직 준비위원회 위원인 김영수 장로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이다. 5개년 계획을 세워 담임목사님과 함께 부흥의 시대를 열 것”이라며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바란다”고 했다.

원로목사로 추대된 안 목사는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예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끝까지 기도로 동행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인도, 멕시코, 중국, 몽골, 북한, 중국 등에 세워져 가고 있는 지교회 개척이 계속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원로목사 추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임 김요섭 담임목사는 “두 교회의 통합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교회에 주어진 더 큰 사명이 있는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다”며 “안 목사님께서 세워가시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그 뒤를 이어 섬겨 나가겠다”고 담임목사 취임사를 대신했다.

한편, 새로 통합된 열매교회와 리디미교회는 지난 5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어 12일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림으로써 새 얼굴의 열매교회 모습으로 이 지역 복음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주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380-0071  
이영인 기자

비아교회 원로목사)가 축사, 김영상 목사(수원북부교회 원로목사)가 축도 등으로 각각 섬겨졌다.

이정남 목사는 ‘세우려 하여’(고후 13:8-10) 주제의 설교를 통해 “주님은 진리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슬러서는 결코 살 수 없다”며 “진리를 위해 쓰러진 자는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그렇게 세움 받아 쓰임받는 성도,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 주



선교사 가족 초청 블레싱 날아에서 UCS의 최아브라함 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 UCS신학대 새 장소로 이전 감사 선교사 블레싱 날아

UCS신학대가 최근 이전한 장소에서 11일 이전 감사예배 및 선교사 가족 초청 블레싱 날아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현직 선교사, 안식년 선교사, UCS 동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예배에서는 강양규 교수(남가주 새언약교회 담임목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원영 교수가 기도하고 풀러신학교 유학생들과 아내들로 구성된 쉘퍼드콰이어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다. 이어 15년간 파라과이 선교사로 섬겼던 최한오 목사(남가주성지교회)가 “이 땅의 그

루터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아브라함 총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홍준만 목사가 축사, 정시우 목사가 격려사를 하고, 김여진 명예총장이 축도했다.

예배 후에는 이종원 선교사(네팔)의 인도로 애찬과 소개 시간이 있었고 손민호 목사(남가주밸교회)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참석한 최고임 선교사(네팔)는 “너무도 행복하고 위로받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과 UCS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김요섭 담임목사 부부(왼쪽)와 안국련 원로목사 부부(오른쪽)

## 열매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

안국련 원로목사 추대, 김요섭 담임목사 취임

열매교회와 리디미교회가 하나로 통합된 후,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지난 12일 오전 11시 열매교회 본당에서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전 열매교회 담임이었던 안국련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전 리디미교회 담임이었던 김요섭 목사는 새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이날 김요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정남 목사(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 증경회장)가 설교, 조전일 목사(나성빌라델

비아교회 원로목사)가 축사, 김영상 목사(수원북부교회 원로목사)가 축도 등으로 각각 섬겨졌다.

이정남 목사는 ‘세우려 하여’(고후 13:8-10) 주제의 설교를 통해 “주님은 진리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슬러서는 결코 살 수 없다”며 “진리를 위해 쓰러진 자는 주



살롬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가 사역 기금 마련을 위한 독창회를 열었다.

## 해외 장애인 위해 13만 달러 모금 中 살롬, 현재까지 4만8천명 도와… 올해는 요르단 등

살롬장애인선교회 후원을 위한 “제12회 훨체어 사랑 이야기-박모세 목사 독창회”가 12일 주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살롬선교회는 1999년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30회에 걸쳐 10개국, 4만8천명 장애인들에게 8,856대의 훨체어, 3만8,419점의 의료보조기구 등을 전달했다. 올해는 요르단과 캄보디아, 키르기스탄에 각각 1천명씩 장애인 용품을 보내기 위해 13만 달러를 모금 중에 있다.

세 목사가 “청산에 살리라,” “고향 그리워” 등 가곡과 “주님과 함께,” “참 좋으신 주님” 등 성가곡을 들팔했다. 조이여성합창단, 남가주농아교회 수화찬양팀, 살롬장애인선교회 찬양팀도 참여해 연주하며 응원을 더했다.

박 목사는 “한인사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현재까지 기금 접수 현황이 목표에서 너무 멀기만 하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 벤추라카운티의 Camarillo/Somis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 주님의 교회 창립 및 임직 감사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교회비전

- 1.주님의 주인 되심을 예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 2.주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 3.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는 교회



[www.joonimchurch.net](http://www.joonimchurch.net)



오정택 담임목사



장로 홍상옥



권사 선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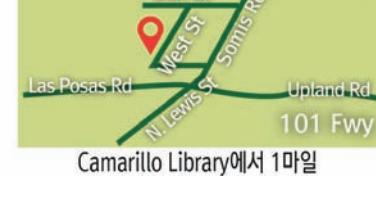
본 교회는 Korean Methodist Church 입니다.

■일시: 7월 19일(주일) 오후 5:00

■장소: 주님의 교회

3300 West St. Somis, CA 93066

주일예배 정오 12시



주님의 교회

JoonimChurchVenturaCounty

805.208.8242

3300 West St. Somis, CA 93066

# 동성결혼 합헌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태평양법률협회, 긴급 설명회 개최… 정관 보완과 자신감 회복 주문

태평양법률협회(PJI)의 대표 브래드 대쿠스 변호사가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 보호 긴급 설명회'에서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교회의 종교자유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교회의 종교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시점과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PJI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돋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이번 판결 그 자체 때문이다. 그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신앙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먼저는 기독교 대학이, 그 다음에 교회와 목회자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봤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 대학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박탈이 신호탄이란 것.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회자의 주례는 법적 효력 상실 등의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는 "종교자유가 미국 역사에서 이토록 위협당한 적이 없다"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헌법이나 정관, 내규에 성경적 결혼에 관한 규정을 넣으라고



한국 예수전도단 대학생들이 산타모니카찬송교회를 방문해 훈련받고 전도했다.



LA와 산타모니카 2군데에서 사역하며 "예수가 답"이란 목회 철학 아래 청년 부흥에 힘쓰고 있다. 그는 달라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탈본신학교를 거쳐 아주사대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했으며 현재는 아주사대학교 목회학 박사(714-640-7471)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김준형 기자



PJI가 주최한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 보호 긴급설명회>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13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수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둘째로 그는 교회가 성경적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다. 그는 "성경적 결혼은 역사적으로 그 회복력이 확인됐다. 어느 시대에나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성경적 결혼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힘써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결정은 결코 돌발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다. 이미 성경은 딥후 3장 1~5절에서 이런 일을 예언하고 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폐락을 사랑한다. 이런 시대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은 예수의 구원과 치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다가가 마

음을 열고 대화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지는 말라"고 권면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회에는 추수의 좋은 기회라고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훈육하실 때에는 하나님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특히 대쿠스 변호사는 "교회가 젊은이들을 복음의 변증가로 훈련시켜, 성적 다양성을 가진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가 구체적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사업을 하는 성도가 동성결혼 문제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종교자유를 행

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쿠스 변호사는 "하비로비가 좋은 사례가 된다. 연방대법원은 개인 소유의 기업도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다 판결 했다. 그러나 주정부나 시정부에 의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소송이 가능 한 상황"이라고 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할 경우 교회와 목회자 중 누가 소송을 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목회자나 교회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지만, 당한다면 둘 다일 수 있다"고 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나 성도를 상담할 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소송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캘리포니아는 주법으로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인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를 거부할 시 자녀를 정부에 빼앗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로 연락해 자녀의 양육권을 보호받으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대쿠스 박사는 "한인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예수를 섬기는 일에 가장 헌신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당신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돼 있다"고 강조했다.

PJI는 5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종교자유 관련 소송 시 교회·목회자·성도를 무료로 변론해 주는, 종교자유 보호 법률기관이다. 웹사이트 [www.pacificjustice.org](http://www.pacificjustice.org)에서 다양한 정보와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한인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714-640-7471)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김준형 기자

## 전도 훈련 · 수련회에 언제나 열려 있어요!

### 산타모니카찬송교회에 한국 예수전도단 방문해 훈련

지난 7월 9일 한국 예수전도단 대학생들이 산타모니카찬송교회(김경렬 목사)를 방문했다. 연세대, 명지대 등에 다니는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산타모니카찬송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각 팀으로 나뉘어져 산타모니카대학교 캠퍼스에서 미국인 학생들과 전세계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배에서는 정중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김경

렬 목사가 '쉬운 영어 전도법'을 강의했다.

한편, 산타모니카찬송교회는 교회를 개방해, 타주나 한국에서 오는 청년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수련회도 할 수 있도록 1박2일 혹은 2박3

일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회 뒷마당에서 야영하며 철야기도

도 하고 인근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다. 김경렬 목사는

산타모니카찬송교회의 여름 전도 훈련 및 수련회에 관해 문의하려면 310-502-9999로 전화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 고르반이란 변명의 불효

마가복음 7: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예수님은 공생애 과정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적 기사를 통하여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 가지라고 무척 애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무언가 실수하지는 않는가, 무언가 다른 것을 전하지는 않는가 하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 1. 장로들의 유전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인지 3~4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으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율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사람의 판단 기준에서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저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더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며, 실천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자기네들과 상관없는 유행인 것처럼 유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유행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되는 바리새인들이 유행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짓밟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만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교육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교권을 가지고 행세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수고했으나, 뭔가 좀 챙기기 위해 장로들의 유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행을 모범으로 하고 더 엄한 생활 실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행으로 포장한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강제적으로 적용하기 시

작했습니다. 이 유전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당장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더라도 유전법은 지키느라고 백성들의 신앙까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 2.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6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께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법에 대해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쳐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을 정확히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9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10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데,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필요한 뜻을 드려야했는데, 그것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하는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만 섬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유행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거늘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그들의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전세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세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네 생각은 어떠하니 세상 임금들이 누가 관세와 전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마 17:25)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왕자가 무슨 세를 내느냐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맞다고, 아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낚으면 그 입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에게서 얻은 것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절 13절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유대인으로서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화폐를 하나 달라고 하시더니, “여기 찍힌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인가?” 하셨고,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사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회 생활에 얹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사회와 국가에 속한 일원으로서 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3. 신앙인격을 통한 전도

오늘 칼럼의 제목은 “고르반이란 변명의 불효”입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십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죽애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잠 19:26),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7)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할 수도 있고, 별 받을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거나 이용거리로 팔아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헌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고 할 때, 남편과 아이들은 어찌되든지 말든지 교회 일이 우선이라고 시간이 되어서 나와 버린다면, 그 남편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면, 미리 집안일을 끝내놓고, 남편과 자녀들의 식사 문제도 해결해 놓고, 자신이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정리를 한 후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항상 안 믿는 사람보다 배나 더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매사에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보다 더 이해해주고, 더 좋게 해 주기를 힘쓰면 시비 걸어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또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원망, 불평, 시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안 믿던 상대방도 감동이 되어서 나도 교회 가볼까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격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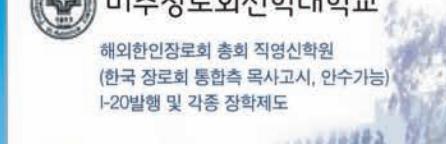
##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교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5시 / 허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화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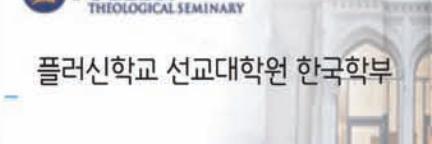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http://YOU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 供 國 際 성은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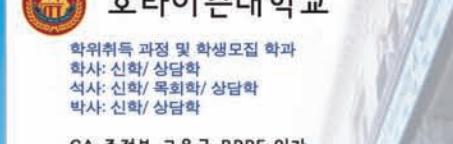
#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정학제도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http://www.ptsa.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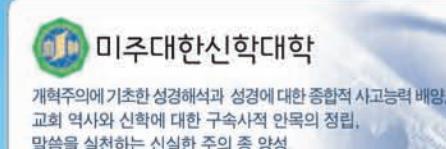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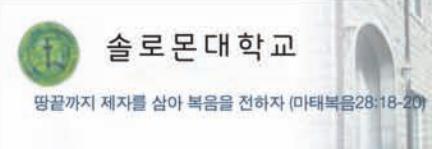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설교학  
석사: 신학/목회학/설교학  
박사: 신학/설교학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송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친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http://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mailto: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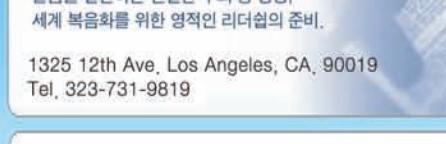
명풀까지 제자리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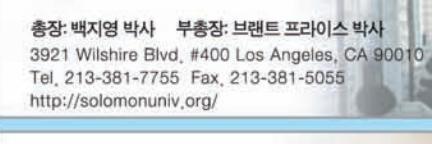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mailto: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http://www.absw.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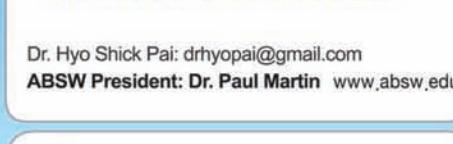
월드미션 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http://wmu.edu) [admissions@wmu.edu](mailto: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http://www.cohenuniversity.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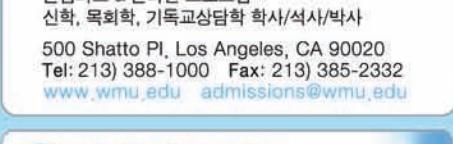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ra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CEO 학감 김호 박사  
3921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mailto: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http://www.chongshinu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mailto: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http://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제 발행  
한수 후 미국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Houston, TX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 교회(동립교단)는 45년의 역사와 자체성전과 기도원을 소유한 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조건

- 1) 목회비전과 철학이 있고 사랑으로 목양 하실 분
- 2) 보수정통 복음주의 신앙 소유자
- 3) 이중언어 가능한 분(한국어, 영어)
- 4)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5) ATS 승인받은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신 분
- 6) 미국에 체류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 7) 담임목사 나이: 35세~49세

### 제출서류

- 1) 이력서(한·영 각 1부) 및 가족사진(본인, 사모 및 가족)
- 2)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각 1부
- 3) 본인 및 사모 그리고 가족소개서
- 4) 최근 설교 CD 2회분
- 5)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6) 목사 안수 증명서
- 7) 추천서 2통(목회자 2명 이상), 추천인 연락처 기재

### 접수안내

- 1) 제출마감일: 2015년 7월 30일
- 2) 제출처: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이메일 문의: kcchofice@gmail.com
- 3) 전화 문의: 713-937-7444
- 4) 청빙위원장: 진상철장로(휴대폰 713-498-3545)

### 기타

- 1) 제출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 2)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과 설교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보장합니다.

휴스턴 한인 교회

##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정근 목사  
유니온교회 원로

사도행전은 씨 뿌리는 사람과 씨를 말리려는 사람들의 투쟁사이다. 씨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조금 더 풀면,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다”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결사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반대파들은 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음의 씨를 말리려고 죽기 살기 나섰다.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 열두 제자인 야고보를 처형했다. 그래도 별다른 저항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수석제자인 베드로를 투옥시켜 꽁꽁 묶어 두었다. 베드로만 죽이면 예수쟁이들의 기세를 결정적으로 꺾어놓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보조를 네 명씩 네 팀으로 조직해서 물샐틈없는 완벽작전을 했다. 게다가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감옥 속의 감옥에 쳐 박았다. 그것도 모두 철문이었다. 이미 제자들이 한 번 감쪽같이 탈옥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행여 베드로가 탈옥하게 되면 그 보조 열여섯 명은 베드로 대신 목이 잘릴 것이라고 엄명을 했을

터였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 우선 기도했을 것이다. 그처럼 꽁꽁 묶인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이란 입으로 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일루의 희망을 걸만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세례자 요한처럼 갑자기 목이 잘릴 것도 각오 했으리라.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이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절대로 가능하게 한 일이 ‘흘연히’ 생겨났다. 천사

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다. 쇠사슬이 손과 발에서 벗겨졌다. 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니 파수꾼이 서 있는 두 문을 무사통과했고, 시내로 빠지는 마지막 문을 거쳐 극적으로 석방되었다.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행 12:10)는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동문을 베드로 앞에 선물하신 것 아닌가.

1970년대 초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땅을 밟았을 때 자동문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 앞에 저절로 열린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록자는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지만 그 속뜻은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것을 누가 모르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문 이야기가 꽤 많다. 좁은 문, 넓은 문이 대표적이다. 그 분 자신이 목수로서 문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던 까닭 일까.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심지어, ‘나는 양의 문이리’(요10:7)고 밝히셨다.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동문’이시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출3:14)이시므로 결국 예수님은 자동문이 되시지 않는가.

## 사랑은 동사형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업교회

좋은 식당이란 음식이 부엌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지 않고 음식재료가 빨리 유통되어 신선한 맛을 유지하는 식당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과 음식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 살아 있으면 움직이고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아름다운 법칙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되고 흘러갈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결국 자기 이기심의 사랑으로 썩게 된다. 받은 사랑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고 위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으로 계속 채워질 때 소통하는 인생,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축복이 임하고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왜 아름다울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하니 그 기쁜 얼굴을 보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갑절의 기쁨임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도 중요하다. 선하고 복된 방향으로 움직여야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이 움직일 때 사람과 환경, 사회와 국가, 오대양 육대주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동사다. 움직이는 것이다.

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느새 삼대로 이어진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자주 만나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다. 좋은 방법은 애들 방학 때 같이 휴가를 내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가서 며칠 지내는 것이다.

이민 1세들은 미국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밤낮 뛰었다. 공부도, 일도 그렇게 했기에 지금에 와서 그 열매가 맺어져 새 땅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고, 그 때 어렸던 애들이 지금은 청장년이 되어 미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니 너무도 장하고 뿐듯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그렇게 빼가 부서지도록 고생하다 보니 노년에 골병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게 되었으면 자녀들에게 기세등등할 만도 한데 오히려 정반대의 말이 스스로 나온다. “우리가 애들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하지만 해 준 일이 별로 없어… 서툰 영어로 숙제 한 번 제대로 못 도와주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 한 번 만족하게 못했고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때에 제대로 놀아 주지도 못한 것이 한평생 한이 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은 부모가

랑이시라”, “하나님도 날씨가 좋을 때만 사랑이시라”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상대의 행동이나 모습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은가? 그렇다면 몸소 실천하신 ‘동사사랑’, 가시관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자리로 되돌아가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언덕을 오르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확증되셨기 때문이다.(롬5:8)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아픔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사랑이고 희망이다. 자고 일어나면 ‘모순이 많다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있는 귀한 사람들도 많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평생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평생 감사하며 살 수도 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선택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다. 사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가슴벅찬 감동으로 노래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움직이는 ‘동사사랑’으로.

## 삼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7·8월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느새 삼대로 이어진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자주 만나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다. 좋은 방법은 애들 방학 때 같이 휴가를 내서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가서 며칠 지내는 것이다.

이민 1세들은 미국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밤낮 뛰었다. 공부도, 일도 그렇게 했기에 지금에 와서 그 열매가 맺어져 새 땅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고, 그 때 어렸던 애들이 지금은 청장년이 되어 미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니 너무도 장하고 뿐듯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은 그렇게 빼가 부서지도록 고생하다 보니 노년에 골병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게 되었으면 자녀들에게 기세등등할 만도 한데 오히려 정반대의 말이 스스로 나온다. “우리가 애들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하지만 해 준 일이 별로 없어… 서툰 영어로 숙제 한 번 제대로 못 도와주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 한 번 만족하게 못했고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때에 제대로 놀아 주지도 못한 것이 한평생 한이 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은 부모가

끼는 것이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 부어도 애들이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할 때는 너무도 황당하고 배신감마저 느낀다. 꼭 자기가 엄마 아빠에게 대들었던 그 모습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반항하며 악을 썼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미안함과 잘못을 털어놓으며 피부를 맞대고 며칠 지내는 동안 아팠던 상처를 녹이는 기회로 삼고 싶은 것이다.

이웃에 사는 흥 씨 아저씨도 이민 1세로 비슷한 심정이기에 해마다 7월이나 8월에 세 자녀들의 가족과 함께 한 휴양지에 방 4개 짜리 집 한 채를 렌트해서 5박6일을 같이 지낸다. 배를 타고 스릴을 느끼고, 승마도 하고 어린 손자 손녀들과 같이 각양 각색의 예쁜 돌도 줍고 그곳의 토속 음식도 먹고 한국 음식도 만들 어 먹는다.

나도 예년처럼 자녀들과 더불어 8월 초순에 갈 장소를 예약했다. 흔히 듣는 말 중에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의 순서는 엄마, 아빠, 강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번에 귀여운 애들에게 점수를 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아지 앞으로 순서가 바뀌도록 해야겠다.

##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십니다.

### 1. 지원자격

-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 5. 제출마감: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SEARCH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세트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품입니다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M3®세트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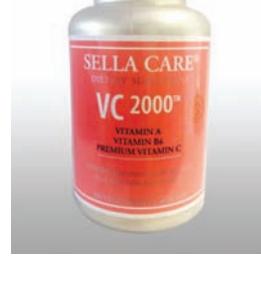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 가능합니다.

### 제품소개



####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좋은 Rosehips과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 MEGA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코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코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알칼리성

셀라케어

산성	중성	8.5	9.0	9.5	10
3.5	6.0	7.0	8.5	9.0	9.5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흄쇼핑	714.496.7887	뉴욕, 뉴저지	201.983.8333
시온약국	213.344.973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가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버니약국	847.699.1511
예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올림피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일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6가 베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뉴서울호텔 (필립)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랜스	213.268.0844		

##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장로교회 하나돼야”

한장총, ‘제7회 장로교의 날’ 개최, 연합·일치 다짐하고 비전 제시



이날 주요 참석자들이 ‘비전70·사랑으로’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이하 한장총) 주최 ‘제7회 장로교의 날’ 대회가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국 장로교회’를 주제로 10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각 교단 기수단의 입장으로 시작된 대회는 개회식과 예배 및 성찬식, 비전선포식 등으로 이어졌다. 한장총 황수원 대표회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전용재(기감 감독회장)·유동선(기성 총회장) 목사가 축사를, 백남선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인사말을 각각 전했다. 황용대 목사(기장 총회장)는 축사를 낭독했다.

황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대회를 통해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고, 광복 후 70년 동안 은

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향후 70년의 비전을 공유하자”며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어둠의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빛의 7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교단다체제와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의 모퉁잇돌’ 장로교회 되어라(골 1:12-14, 미 6:6-8, 히 7:1-2)’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종윤 목사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며 “그런 하나님께서 분열된 장로교회 역시 하나님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열을 넘어 한교단다체제를 이루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돼야 할 것”이라며 “모퉁잇돌은 건축에서 반드

시 있어야 할 것으로, 장로교회가 하나되어 교회와 사회에서 이 모퉁잇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가자”고 역설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김수읍(한장총 부회장)·김인기(한장총 비전70부총장)·이윤재(미래목회포럼 대표) 목사, 이호영 장로(한장총 부회장)의 인도로 각각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통일, 교회 성장,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권태진 목사(한장총 증경대표회장)가 접례한 성찬식과 정영태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또한, 이날 대회는 홍호수 목사(실행위원장)가 사회를 맡은 ‘비전선포식’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김진영 기자

## 평신도를 자체적으로 ‘목사’ 임명’한 교회 논란

“장로교 공교회성 훼손”… “교인 섬기는 직분일 뿐”

예장 통합 소속의 한 교회가 12일 한 교인을 자체적으로 ‘목사’ 임명한 것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평일에는 카페이며 어린이도서관도 운영 중인 이 교회의 이번 사건은, 이진오 목사(인천 더함공동체교회)가 자신의 SNS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목사는 “장로교에서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 노회가 정한 절차와 자격을 통해 목사로 세워지고, 개교회에 위임되어 목사직을 수행한다”며 “장로교 통합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소속 교단인) 통합의 교리와 제도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자기가 속한 교단의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해 보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로서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

교단체연합회(KAICAM) 소속이다. 또 “한국 정통적 교회 일원으로 인정되는 교단의 일원이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무시하고 위배한다면 그 교단의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통적인 교단의 공교회성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은 한국 교회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진오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좋다고 생각해 목사를 세웠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목사’를 다른 교회 신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며 “그렇게 세워진 목사도 목사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물기도 했다.

이에 해당 교회 목회자는 “지난 주 우리 교회가 한 일로 교단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진오 씨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저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책

임감을 갖고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목사’ 직분을 받은 이는 신학 공부를 마쳤고,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우리 교회는 교단 협법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목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 교회 자체적으로 목사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직분일 뿐”이라며 “우리 교회는 목사의 모든 권위가 교인에게서 나옵니다. 목사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며 그 섬김에 따라 권위가 부여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는 주체는 (노회도 교단도 아닌) 교인”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 속 빈 유럽 기독교, 이슬람이 채워

조용성 선교사, 예장 합동 이슬람 대책 세미나서 발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이슬람대책위원회(위원장 권순직 목사)가 14일 서울 산정현교회(담임 김관선 목사)에서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터키 현대 이슬람운동의 상황화 연구’를 제목으로 발표한 조용성 선교사는 “현대 기독교가 풀어야 할 과제는 중동의 근본주의 이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서구 다원론 사회에서 자생력을 갖고 생성된, 상황화된 이슬람의 영향력”이라며 “이슬람은 유크라(전통 코란)와 자연 과학을 수용·종합해 현대화했다”고 했다.

조 선교사는 “문제는 현대 이슬람이 서양의 기독교 윤리 및 이성·철학을 동질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슬림들이 서서히 유럽의 기독교 토양 속에서 자생력을 갖게 됐다. 여기에 이슬람의 힘이 있다. 윤리만 남은 서구 유럽의 기독교 겹대기 공간을 상황화된 이슬람이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대 이슬람은 그 핵심 가치를 ‘거룩한 이동’에 두는 ‘삶이 종교이고 종교가 삶’이라는 생각에서 무슬림들은 태어난 조국을 떠나 삶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무슬림의 종교적 헌신은 타문화권에 가서 사는 일”이라고 했

김진영 기자

## ‘전쟁설’ 물의 홍혜선 한국 집회 예고

지난해 소위 ‘12월 전쟁설’ ‘땅굴 남침설’을 유포하며 교계 안팎에 물의를 일으킨 홍혜선 씨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오는 8월 15일 국내에서 ‘한국이너힐링’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홍 씨는 “장애우들은 세션비없이 섬길 것”이라며 “이너힐링은 그 낭내적 치유가 아니라 시달리게 하는 악령들, 예를 들어 잠을 못 자게 하는 영, 우울증의 영, 자살의 영, 혈기의 영 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축사(달리 버런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이 영상에서 풀러신학교 계정(@fuller.edu)의 이메일로 집회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홍혜선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전쟁이 발발한다”고 ‘예언’하면서, 자신은 그 전에 미국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그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어야 했는데 종북세력이 이를 막고 있으며, 언론이 조용한 이유는 정부와 언론이 모두 종북세력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 헤어 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웨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웨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myStylist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 뉴욕목사회

### 황성주 박사 초청 암·면역 세미나



뉴욕목사회 주관 황성주 박사 암·면역세미나가 13일 금강산 식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13일 오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황성주 박사 암·면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뉴욕지역 목회자들을 비롯한 평신도들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사 황성주 박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 전문 병원에서 치료의학을 공부했다. 현재 암 전문병원인 사랑의병원 원장과 (주)이룸 생명과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의 분당 꿈이있는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황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암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면역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주 목사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태도

등이 면역력 약화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암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체에 주신 면역력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현재 암치료에 사용되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법으로는 암세포도 사멸되지만 동시에 면역세포도 죽인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면역력 강화를 통해 신체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암에 걸리는 것은 면역력 약화가 가장 큰 이유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면 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암세포는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몸의 병든 내부 환경 또는 잘못된 믿음이 암을 유발시킨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모든 일에 여유를 갖기를 당부했다.

### 8.15광복 70주년, 너도 나도 1달러 현금



최윤선 집사(좌)와 박상원 목사(기드온 동족선교회 대표) 부부

워싱턴주 동부 트라이시티에 거주하는 최윤선 씨가 올해로 70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 "8.15 광복 70주년, 너도 나도 1달러 현금" 캠페인을 제안하고 기드온 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최윤선 씨는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선교 현금은 교회를 초월해 미주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일년에 한 번, 한 마음 한 뜻으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모으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1달러 현금 방법은 각 교회마다 전 교인들이 1달러 혹은 그 이상을 현금하고

모금된 현금을 기준에 후원하던 북한 선교 단체 혹은 기드온 동족선교회로 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교회는 통일선교 현금봉투를 준비해 성도들에게 나눠주거나 현금함을 배치한다. 박상원 목사는 "19세기 말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후 한국 선교는 100주년을 맞이하며 세계 2위 선교국으로 발전했다"며 "이제는 북한 땅에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1달러 현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425-777-7477 / gbmwusa@gideonbrothers.org 김 브라이언 기자

### 노숙자 훈련, 봉사자가 더 큰 은혜



디딤돌선교회 노숙자 훈련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딤돌선교회의 제10차 재활 및 영성 훈련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다니엘기도원에서 열렸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16명의 노숙자 리더들은 재활과 셀그룹 리더 훈련을 동시에 받았다.

특별히 이번 제 10차 훈련은 워싱턴 DC중앙장로교회 대학부(박형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노숙자는 물론 단기 선교에 참여한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큰 도전의 시간이 됐다. 선교팀은 훈련을 마친 후에도 다운타운의 쉘터를 찾아 준비한 음식으로 노숙

자들을 섭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디딤돌 선교센터에서 리모델링하는 일을 도왔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노숙자 리더들은 입을 모아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다.

디딤돌 선교에서는 노숙자 훈련사역에 이 지역 교회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제11차 훈련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다니엘 기도원에서 열린다. 디딤돌 선교회: 전화 404-429-9072 / jchsong@hotmail.com 김 앤더슨 기자

## 교회 밀션 교회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비결증학교 / 토오사벽 / 17와 비몬트 코너  
주소: 세속지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 LA 사랑의교회

평도를 깨우고 이웃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소: 세속지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T.(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 LA 선교교회

내 지성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에,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435-0380, (213)435-0094 / www.mission.org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구역모임 오후 7:30  
오후 천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박성도 담임목사

### LA 선교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산양 공동체

45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92-0788 / kuinholly@hanmail.net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주일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침례부 오후 1:30

진유철 담임목사

###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기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939-7323 / www.kwpcla.org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 388-7101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학교 오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714) 319-2234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금요예배: 오후 7:30

김광삼 담임목사

###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기섭 담임목사

###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310) 645-3698 / F.(310) 645-306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387-1700 C.(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친구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이명수 담임목사

### 청운교회

선교에 흔들, 소·초·초·장신의 흔들, 바른교회만의 흔들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재선 담임목사  
하성 청년부 예배 오전 11:10

주일부예배 오전 8:

##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진회 오후 8:00  
3부영예예배 오후 1:00 금요성공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세례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성민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공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 주일 오후 1:00

##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3부예배 오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기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11:45 오전 6:00(토)

##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 교회  
이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화-금) 오후 11:45  
3부예배 오후 1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4부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금) 6:00(토) 오전 6:00

##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침)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분상전) 새벽기도회(화-금) 6:00  
분성전 7:5580 Ramon Ror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6:5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금) 6:00(토) 오전 10:00-11:00

##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3부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화-금) 5:30(토) 오전 6:00

##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김영구 담임목사  
성경공부 중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밀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EM) 오후 9:11시

##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EM)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6:00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 대홍장로교회

명풀까지 내 즐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5:30(화-토)

##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철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성공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화-금) 7:00(화-토)  
오후 1:00

##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하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교시(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화-금)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5:3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어모임 예배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화-금) 5:30

##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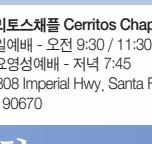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별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화-금) 5:30(화-금) 최호년 담임목사  
스페인예배(화-금) 오전 10:00 오후 6:30(화-금)  
한국어(화-금) 10:00(월-수) 금요찬양예배(화-금) 8:00  
오후 12:00(분상)

##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화-금) 5:30(화-금) 최호년 담임목사  
스페인예배(화-금) 오전 10:00 오후 6:30(화-금)  
한국어(화-금) 10:00(월-수) 금요찬양예배(화-금) 8:00  
오후 12:00(분상)

##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 캐나다 법원, 기독교 로스쿨 제재

동성애 반대 학칙 안 바꾸면 인가 취소할 터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전경 ©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캐나다의 한 법원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학칙을 가진 기독교 로스쿨에 대해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의 재판관 3명은 지난 주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ern University)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대학은 지난 2014년 4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소재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이 대학에 대한 인가를 취소한 어퍼 캐나다 법률 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의 학칙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성적 친밀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칙상 동성애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사명, 핵심가치, 커리큘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성경에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 협담, 비방, 저속/음란 언어, 도둑

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의 오용 또는 파괴, 음주, 미성년자의 음주, 불법 약물 소지나 사용 등을 금한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학칙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로스쿨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서 특정인들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차별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만 인정된 것.

한편,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이 인가를 취소돼 법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온타리오주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노바 스코티아 고등법원(Nova Scotia Supreme Court)이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이 노바 스코티아 법률 협회(Nova Scotia Barristers' Societ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단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제이미 캠벨(Jamie S. Campbell)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협회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과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다.

##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 강

유네스코, 요르단 강 동쪽 둑방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으로 알려진 까스르 엘 야후드 ©이스라엘 관광청

유네스코가 요르단(요단)강 동쪽 둑방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요르단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학자들은 세례 장소가 강의 어디쯤이었는지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채플힐에 소재한 노스캐롤라이나대 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는 조디 마그네스(Jodi Magness) 교수는 “유네스코의 결정은 고고학적 실제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장소에 대해) 1세기부터 계속 인정을 받아온 어떤 증거나 고고학적 유산의 현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요르단강을 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 美 글렌코시, 기독교 깃발 내려

무신론자 단체의 항의로 정부 소유지에서 기독교 깃발내려



무신론자 단체의 항의를 받고 제거된, 글렌코시의 기독교 깃발(맨 왼쪽). ©글렌코시

미국 앨라바마 주의 한 도시가 한 무신론자 단체의 항의를 받고 정부 소유지에서 기독교 깃발을 제거했다. 글렌코시는 최근 워스콘신주 매디슨에 기반을 둔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에게서 항의 서한을 받은 후, 경찰서 부지에 있던 기독교 깃발을 내렸다.

FFRF의 법률 담당인 앤드류 시렐은 지난 2월 서신을 통해 "명백하게 종교적인 성장인 깃발을 시 소유지에 내건 것은, 시가 기독교를 옹호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결국 지난주 찰스 길크리스트 시장은 지역 매체에 해당 깃발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길크리스트 시장은 WBRC 폭스 6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 대변인 타샤 블랙커비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깃발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깃발을 제거한 것으로 인해 시민들이 화가 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FFRF의 공동대표인 앤니 로리게일러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의 정부, 세속 정부가 기독교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美 정교분리연합

### 종교적 신념 따라 동성결혼 거부 못하도록 할 것

워싱턴 D.C. 소재 세속주의 단체인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은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종교기관들을 보호하려는 주, 연방, 법원 차원의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당신의 이웃을 보호하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동성결혼식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려는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종교단체를 모니터링 한다. 또 이 단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이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판결에 대항하기 위해 법적 청구나 행정명령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단체의 총무인 배리 린은 기자회

견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등과 정교분리, 동등한 대우, 편견없는 정부 정책을 가치로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주나 연방 차원에서 이를 막으려는 법적 조치에 대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나친 종교자유 추구를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이 단체는 인디애나 주와 아칸소 주, 그리고 다른 주들의 종교자유회복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법안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종교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동성결혼식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부모 동의 없어도 청소년 성전환 가능 오리건 주 15세 성전환 수술해 충격

오리건 주가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주 정부의 보조금을 투입해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성전환 수술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리건 주는 최근 기독교 베이커리 주인에게 13만 5,000불의 벌금형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학부모 권리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 '부모 교육 권리'의 로리 포터는 최근 폭스 뉴스에 "이것은 우리 자녀의 마음과 영혼과 신체에 대한 범죄"라면서 "일생 일대의 결정을 부모나 보호자가 모른 채 내리도록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충격스러워했다.

오리건 주는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오리건 헬스 플랜'을 통해 성전환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포틀랜드에 있는 트랜스액티브 센터의 총무인 젠 벌리튼은

KOIN 6 뉴스에 폭스 뉴스의 보도는 비이성적이고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리건 주에서는 1971년부터 의료 시술과 관련해 1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부모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리건 헬스 플랜을 통해 성호르몬치료, 사춘기 억제 약물 제공, 성전환 수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 의회가 아닌 보건국의 한 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록 주 법에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15세 청소년에게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성전환 수술을 실시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폭스 뉴스는 이 보도와 함께 아동 학대에 가까운 오리건 주의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의사들과의 인터뷰도 다수 보도했다. 지난 2003년 스웨덴의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들이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청년들 무슬림 개종자 빠르게 증가

### 2015 중국 종교 연구 보고서에 발표돼

새로운 연구 결과,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슬람 개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대학교에 소재한 국립연구조사센터(National Survey Research Centre)에서 발표한 '2015 중국 종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무슬림의 약 22.4%와 가톨릭교인들의 22%가 30대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인민대학교 불교학 교수인 웨이드 동 박사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

서 "중국의 이슬람 인구는 점점 줄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슬림 여성들의 경우 보통 7명의 아이를 낳고 있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 된다. 성인이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나이가 많은 이들 일수록 불교나 도교 신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불교 신자 수가 가장 많았고, 개신교의 경우는 예배 장소가 가장 많았다.

강혜진 기자

## O.C./일반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례예배 오후 8:00  
화요종교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한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예배 9:30, 11:30  
한국어예배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금) 6:00(토)

오병익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소동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예배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 매월 4주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민경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11:00  
2부예배 오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일유아부 예배 오후 1:30 EM 대학부 예배 월-금 6:30  
유초등부 예배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박재만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 A CA 92821(Lambert&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하귀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예배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안창호 담임목사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부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박일룡 담임목사

고현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준이예배)

주일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월-금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디사이플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로뎀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TEM.COM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2:00(준이예배)

김한요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3부예배 예배 오후 11:00  
도요 새벽 협회 새벽 예배 새벽 6:00

이승필 담임목사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 7:20 PM (성경 66권 책별성경공부)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라세임 목사  
사무간사 흥지윤 전도사

새로운 교회

이제 새롭게 밝고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를 받아  
하나님의 선교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무언가로 변화하는(12:2)

12439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이동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6) 오후 11:00  
토요 학부 새벽기도회 오후 6:00  
College 오후 1: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후 6:00  
중고등부 오후 11:

amgreensolutions.com

앰그린의 '닥터 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 시스템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앰그린- 닥터 솔라

##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800-342-5397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Water Amount Due **\$322.98**

Electric Amount Due **\$23.38**

Water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솔라시스템- 앰그린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 우리 함께 '고·사·리' 심어요!

지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곳 — 거제도 "애광원"

그들에게 물었다. "인권이란 무엇이죠?" 그러자 한 마디 말하는 것조차 너무도 힘겨운 중증지적장애우들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인권은? 죄코파이예요. 집게 만드는 거예요. 장난감이예요. 우리의 입장이예요. 서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서로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없이 기쁘고 행복해 하는 것,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인권의 의미다. 그래서 애광원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인권인, '고·사·리' 심김 실천으로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 ◆애광원의 보호시설

함께 있어 행복한 보금자리인 애광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지적장애우들이 함께 생활하며 특수학교를 다니거나 교육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여가동아리 등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적장애우들의 자립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자립 힘, 체험학습, 자립가정 등의 서비스

있는 셈이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한신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교류를 통한 기관 간의 협력과 산학연계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실무교육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에게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적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질좋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붉은지붕의 애광원 뒷산에서 내려다 본 거제도 장승포 항. 이 건물은 어느 곳에서든지 시원한 거제도 장승포 앞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거동이 불편한 지적장애인들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강병균 교수의 헌신작이다.

장애를 극복하고 독립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80여 명의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특수학교다. 장애우들의 내면 세계에 잠재해 있는 사고를 끄집어 내어 적용하는 생활기능 중심 교육 시도를 통해 실제로 큰 효과와 열매를 맺고 있다.

성빈마을은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자주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장애우들의 보금자리다. 이곳은 지역사회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통의 마을이다. 한 아파트에 3~4명씩 거주하면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민들레집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재활을 도와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돋은 역할을 한다. 각종 치료와 기초체력증진이 가능하게 한 장애우들의 보금자리이다. 현재 백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사회재활 서비스와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옥수어린이집

법인 영유아보육시설인 옥수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기관이다. 더불어 지적장애인들에게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심어주면서 장애우들과 비장애인 간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없애주는 전인적인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김임순 원장

김임순 원장은 90 평생 전쟁 고아들과 지적장애인들을 섬겨온 노고로 수많은 봉사상을 수상했다. 그 중 1989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으

로 불리는 마사이상 수상은 김원장이 평생 얼마나 헌신적인 삶으로 일관해 왔나를 잘 대변해 준다. 부상으로 받은 삼만불은 현재 애광원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만나를 건축에 사용됐다.

김 원장은 번번 번개 빛나는 삶을 꿈꿨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

하지만 않았어도 분명 그 꿈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김 원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신여성으로 교수가 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김 원장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펼치는 '사랑의 전령사'로 선택하셨다. 아니,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셨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모습, 이미 태고적으로부터 정해진 모습, 하나님 자신을 닮아 태어난 장애우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다. 피난지에서 군용 담요에 둘둘 말린 7명의 전쟁고아를 맡긴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런 김 원장이 이곳 옐에이를 찾았다. 지난 1985년의 대형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에 구십 노구를 의지하며 달려온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애광원에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다. 온전한 손길 없이는 단 한 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다. 이미 세계 각처 및 미동부 지역으로



애광학교 수업에 참가한 지적장애인들이 사진 촬영에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다.

다. 하나님의 뜻은 김 원장을 통해 우리를 향해 날마다 흘리는 당신의 사랑의 눈물, 진정한 생명수를 펴나르는 전령사로 사용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정된 신의 선택이었다.

그 신의 선택은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부터 많은 도움을 끊임없이 받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여전한 현재진 행형 필요이기 때문이다.

· 애광원: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063(장승포동) 전화(055-681-7524) 웹사이트([www.akw.or.kr](http://www.akw.or.kr)) 이메일(aikwang@hanmail.net)

이영인 기자



애광원을 방문한 주한미해군 프란케케티 사령관 가족과 함께 한 김임순 원장과 외동딸 송우정 상임이사(오른쪽으로부터)

#### ◆애광원의 발자취

거제도 애광원은 1952년 애광원으로 시작됐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버려진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그 후 1978년 전쟁고아들을 보살피던 영육아시설에서 정신박약아보호시설로, 1991년 지적장애인시설로 전환됐다. 하나님께서 전쟁고아들의 안식처에 지적장애인들을 보내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6년 장애우 전문학교인 독일 프뢰벨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해 10월 중증장애인 요양거주 시설 민들레집, 법인영유아보육 시설 옥수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애빈에서는 장애우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직업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 이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제빵 기술을 통해 빵을 굽고, 원예 기술을 배워 꽃과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제품 생산과정에 동참하여 생산한 제품 등을 지역사회에 납품하거나 바자회 등을 열어 판매하며 경제활동을 체험해 한다. 이는 경제적 자립 경험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애광원 내 애빈하우스를 운영하여 본인들의 수고로 생산한 것들을 직접 판매해 하고 있기도 하다. 거제애광학교에서는 장애우들이 매일같이 애광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및 지원을 통해 온전한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적장애인들의 재활을 돋는 시설인 애빈, 지적장애우 특수학교 거제애광학교, 지역사회 속 지적장애인들의 공동생활 체험시설 성빈마을, 중증지적장애우 요양거주 시설 민들레집, 법인영유아보육 시설 옥수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애빈에서는 장애우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직업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 이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제빵 기술을 통해 빵을 굽고, 원예 기술을 배워 꽃과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제품 생산과정에 동참하여 생산한 제품 등을 지역사회에 납품하거나 바자회 등을 열어 판매하며 경제활동을 체험해 한다. 이는 경제적 자립 경험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애광원 내 애빈하우스를 운영하여 본인들의 수고로 생산한 것들을 직접 판매해 하고 있기도 하다. 거제애광학교에서는 장애우들이 매일같이 애광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법인 영유아보육시설인 옥수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기관이다. 더불어 지적장애인들에게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심어주면서 장애우들과 비장애인 간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없애주는 전인적인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김임순 원장

김임순 원장은 90 평생 전쟁 고아들과 지적장애인들을 섬겨온 노고로 수많은 봉사상을 수상했다. 그 중 1989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으

다. 하나님의 뜻은 김 원장을 통해 우리를 향해 날마다 흘리는 당신의 사랑의 눈물, 진정한 생명수를 펴나르는 전령사로 사용하는 것에 있었

다. 그리고 그것은 예정된 신의 선택이었다.

그 신의 선택은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 대리점 모집

##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재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텁텁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세탁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비미나 세제는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돌】

밥 지을 때 밥솥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데오 걸러리아)

Tel:323)316-6815

####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량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운이 나오면 먼지가 잘 불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궁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철학순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뿐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감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뿐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궁을 청소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뿐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 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 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성이 오래가고, 꽃에 뿐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넣어 사용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고, 먹시는 편입니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뿐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꼼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그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뿐리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뿐리(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일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회석하여 사용합니다.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Duplex	Dual Scan ADF	Emper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1										



\*Optional : Fax & Finisher

# 이슬람은 왜 기독교를 비난하는가?

## 1.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비난

이슬람에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구세주는 아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은 신성이 없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때문이다. 예수님은 살아 있을 때 결코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런 신화는 예수님의 죽은 이후에 교회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디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를 비롯하여 많은 성경구절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알려주고 있다(요일 4:14; 마 7:21-22, 8:2, 9:28, 12:8, 14:28, 30, 15:22, 17:15, 28:6; 막 2:28, 7:28, 9:24; 뉴 2:11, 5:8, 7:31, 11:1-19, 19:10, 22:31, 24:34; 요 3:17, 4:42, 6:23, 8:11, 9:36, 11:2-3, 12:47, 13:6, 14:5, 20:13, 20:28, 21:7).

## 2. 기독교의 원죄를 비난

이슬람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백지처럼 원죄가 없이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아담이 최초의 죄인으로서(꾸란 2:35)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에덴동산은 이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었는데, 아담이 지구상으로 옮김으로써 죄의 대가를 이미 치렀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타락 이전에는 죄를 물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으며, 벗은 몸이 창피하여 가리려고 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수고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디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임태하였나이다”(시 51:1)라고 고백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 7:15-17)라는 말씀을 통하여 원죄를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슬람에서는 죄의 본질에 대하여 침묵하고, 죄의 기원·결과 또는 치유에 대하여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죄에는 소죄와 대죄가 있다고 가르친다. “소죄를 범하더라도 당신을 신앙의 사회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대죄를 범하지 않으면 알라는 당신의 악한 행동을 용서하고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한다”(꾸란 4:31)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소죄는 학자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어쨌든 소죄는 단순한 부주의이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거짓말, 사기, 분노, 탐욕과 같은 것을 가벼운 범죄로 본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가장 악하고 용서받지 못한 대죄는 무엇일까? 첫째는 유일신 알리를 모독하는 것이며, 둘째는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 3.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비난

이슬람에서는 각각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알라 앞에서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심지어 꾸란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된 예수님마저 남을 위하여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인간의 선행과 이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쓴다. 이슬람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종교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정한다.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의 필요성이다. 죄를 범한 인간은 자신의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이 피 제사의 원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 3:21)

그렇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은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히 10:4)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 9:15)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유 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신 것만이 인간을 위한 유일한 희망인 것이다.

## 4. 기독교의 교파 분열을 비난

필자는 1992년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이집트 정보부원들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다. 그 후에 정보부에서 심문을 받았다. 좁은 방 안에서 정보부원들 4명은 번갈아 가면서 “당신은 기독교의 어느 교파 소속이며 어느 교파에서 파송되었소?”라고 소리쳤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하면 으레 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가 많은 종파로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교파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루터에 의한 개혁은 독일에서 시작되어 루터교가 되었고, 칼빈사상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에 의하여 감리교가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 침례교가 많아졌고, 20세기 초반의 부흥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사실 교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증거이다. 오히려 교리의 차이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기독교의 교파들을 살펴 보면 이

단이 아닌 이상 믿음의 중심 교리를 과 사역, 그리고 구원관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 새 삶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자들을 통해 세워져간다. 교파는 또 다른 형제들이고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기독교 종파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종파 분열과 서로 다른 교리 간의 불협화음은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동 분쟁의 핵심인 IS(이슬람국가)는, 시아파로 변해가는 중동에 수니파가 공격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IS를 ‘수니파 무장단체’라고 부른다. 엄격한 의미에서 중동 분쟁은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의 종파전쟁인 것이다. 심지어 이슬람의 교파는 핵심적인 교리 부분에서도 아주 다르다. 예를 들어 시아파는 숨어 있던 이람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데 반해, 수니파는 절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시아파는 꾸란이 창조되었다고 믿지만, 수니파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수니파와 시아를 나누는 교리 차이는 수 없이 많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 교파들 사이에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는 교파가 무려 100-200개나 된다.

## 5. 기독교인들이 돼지고기 먹는 것 비난

구약시대에 돼지고기는 율법으로 금지된 음식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전 4:4-5)

꾸란은 예수님의 과거에 금지된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꾸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전에 율법(구약)이 있었음을 확증하고 너희에게 금지되었던 몇 가지를 허용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왔으며 너희 주님으로부터 예증을 너희에게 가져왔으니 알리를 두려워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이니라”(꾸란 3:50)라고 하셨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첫째, 무슬림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지도 주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 무슬림에게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비록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무슬림들을 대해야 한다.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무슬림의 이야기가 모독처럼 들릴 때,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 한 일이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인 우리가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은 무슬림이 아니라 이슬람의 영이라는 사실이다. 복음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열쇠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부득이 해야만 한다면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다. 그들의 부정적인 면까지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다면, 어떤 무슬림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무슬림 영혼들 또한 헌신된 기독교인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의 다마스쿠스의 대사원의 왼쪽 첨탑에 재림할 것으로 믿고 있다. ©FIM국제선교회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 장수한의원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축  
장  
이  
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땅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털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빠들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땅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빠듯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끝!

- 통증 클리닉: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 불감증  
한방 내과: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상 질환, 변비, 알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불임증, 간경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탕 및 보약 기타: 비만치료  
이란부계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경기,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간경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 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손에 잡히는 구약 · 신약 개론

트럼퍼 룰맨 3세 | IVP | 266쪽

IVP에서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이하 구약 개론)>과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이하 신약 개론)>이 나란히 발간 됐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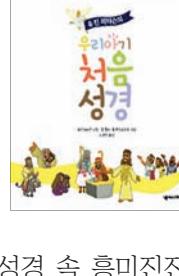
는 말처럼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다 보면 해당 본문이 속한 성경 각 권의 특성이나 주제를 잠시 읽을 수 있는데, 이 '구약·신약 개론'은 간단명료하게 이 부분들을 설명해 준다. 특히 설교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다.

#### 우리 아기 처음 성경

유진 피터슨 | 넥서스CROSS | 448쪽

저자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언어 속에서 성경의 언어를 듣고, 성경의 언어 속에서 오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돋고 있다. 이를 통해 묵직한 외형과 딱

딱한 문체에 가려진, 성경 속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책은 <첫 번째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신·구약 2권으로 나뉘어 발간되었는데, 이번에 판형을 교체하고 한 권으로 합본해 다시 나왔다.



#### 초점

하용조 | 두란노 | 224쪽

40대 하용조 목사가 깨달은 삶과 신앙의 지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저자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뜻을 깨닫



는 것이다.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다고 말한다.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빛도 소금도 힘을 잃었다고 소리를 내기 전에 모든 소리들을 낮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응시하자고 한다. 영성회복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 예수님의 심장으로

김유수 | 큐란출판사 | 400쪽

설교를 통해 은혜와 믿음이, 지혜와 능력이, 꿈과 비전이 불이 되고 강불이 되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가 <크리스찬 월광신문>에 게



재한 설교 중 30편을 묶었다. 모든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나 누구신가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설교했기에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담고 있다.

### REVIEW

## “소속 연기자들 중 ‘극단적 선택’ 없는 이유는”

연예인 등 크리스천 21인의 진심 담긴 이야기

연예인과 의사, 신학교수와 NGO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21명의 진심이 담긴 인터뷰집 <스페셜리스트>가 발간됐다.

책에서는 21명의 '스페셜리스트'들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청년들에 게 전하고 싶은 자신의 '스페셜리스트'는 누구인지, 그리고 기자 출신 저자가 21명 각자에게 쓰는 편지 등이 담겼다.

목회자가 아닌 '월드휴먼브리지' 대표로 만난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는, 청년들을 향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가슴 뛰는 일을 하라고 주문한다. 김 목사는 "미래를 꼭 바꿔야만 하는 큰 결단이 아니라면, 한

번 시작한 일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기 바란다"며 "그러나 모든 일을 끝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정성욱 교수(美 덴버신학교)는 학자로서 선교단체를 설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8년 전 위암 투병 사실을 고백한다. 그는 "조기 발견했지만 위장의 80% 정도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해야 했고, 5년간 힘든 회복 과정을 겪었다"며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은 제게 선교단체를 설립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2012년 큐리오스 인터내셔널을 창립했다"고 전한다.



스페셜리스트  
조경이 | 달빛아래 | 333쪽

연예매체 기자 출신답게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연예산업 종사자들이 많다. 회사 안에 신우회를 설립 했다는 싸이더스HQ 김상영 상무는

"소속 연기자들 중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기도 하다"

며 "그 예배의 자리가 작다 생각해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음성처럼, 신우회를 통해 초신자들을 양육해 더 높은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

<신이 보낸 사람> 김진무 감독은 "20대였던 제게 영화는 저를 성장시키는 동력이자 이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종교'였지만, 지금은 도구이자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며 "지금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지만, 언제든 하나님께서 영화를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한다.

이 외에도 비올리스트 김남중, 헤어스타일리스트 박종원, 금단제복 복 대표 이일순, 영화 <크로싱> 작가 이유진, 가수 자두, 스타트레이너 대표 정주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 담긴 21편의 이야기는 스페셜리스트 21명의 신앙고백 이자, 그들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며 "내 글이 아닌 그들의 글이고, 그들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글"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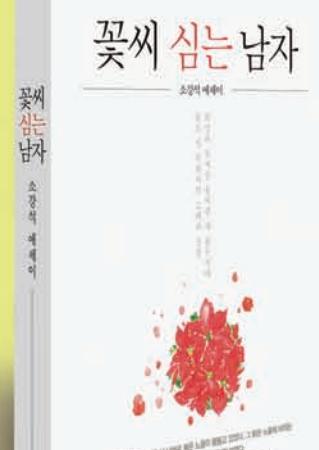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꽃씨 심는 남자

"그는 거친 흉아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애정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251면 / 10,000원

평화의  
꽃길  
을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콤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콤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ourm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TEL : 747-1004(대)

## 오래 전 쓰인 성경,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재해석하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삶에 대한 태도, 살아가는 방식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그것들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문제는 '무엇으로 그 태도와 방식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가'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생각과 행동과 지침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배경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개념들을 오늘날에는 무 가치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던 것들을 오늘날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간극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은 갈등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면서 문자적으로 지키려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시도는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좌절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강단에서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 믿고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에는 구약의 율법들을 전복시키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 놀라운 것은 그런 모습을 서슴없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할 뿐 아니라 '율법의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마 5:17-19).

앞에서 율법을 전복시키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고 실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 상황과 배경 속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재해석'이다.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성경을 재해석 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의 재해석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 가치와 패러다임들을 무시한 채 무조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자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타당하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저자 리처드 헤이스는 본서 <신



신약의 윤리적 비전  
리처드 헤이스 · 윤승원 역  
IVP | 709쪽

야의 윤리적 비전>의 서론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마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23쪽)"

그가 경고하는 것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 즉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 본문들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성경의 내용들을 토대로 기준점을 찾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용하며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어떻게 신약성경을 읽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가는지 보여준다. 그가 제시하는 중요한 틀은 네 가지다.

첫째, 정밀한 본문 독해로써의 서술 과제(descriptive)다. 그는 1부를 통해 바울과 '코이노니아'에 대해, 그리고 바울의 전승, 각 복음서의 주제들, 역사적 예수의 역할, 계시록 등에 대해 자신이 발견한 메시지들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성경의 맥락에서 본문의 위치를 확인하는 종합 과제(synthetic)다. 저자는 2부를 통해 종합 과제의 역할을 제시한다. 먼저 신약성경 내에서 발견되는 불일치들을 비교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절충해야 할지를 말한다. 그 절충 과정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집중된 이미지가 있는데,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 본문과 우리의 현실을 연계하는 해석 과제(hermeneutical)다. 이 해석 과제를 위해 저자는 먼저 성경의 양식을 '규정', '원리', '패러다임', '상징'으로 구분한다.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부적절하게 여기고, 성경 외에 전통이나 이성, 경험의 틀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아무리 심각하게 응호한다 하더라도, 슬로건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으로)는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부적합한 명제다. 왜냐하면 성경 해

석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언제나 이성과 경험의 조명을 사용하고 성경을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연관시키려 시도하는, 어떤 특정 전통의 영향 아래 있는 해석자들에 의해 읽혀 왔다(330쪽)"

저자는 3부에서 툴-서술 측면(본문 해석의 적획/적합성), 종합 측면(사용된 본문의 범위, 본문의 선정, 초점 이미지), 해석 측면(규정, 원리, 패러다임, 상징, 전통, 이성, 경험), 실천 - 을 사용해 라인홀드 니버, 칼 바르트, 존 하워드 요더, 스탠리 하우어워스,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타 등이 말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을 비평한다.

넷째, 본문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 과제(pragmatic)로, 이는 말 그대로 적용이다. 저자는 4부에서 '폭력', '이혼과 재혼', '동성애', '반유대주의와 인종 갈등', '낙태' 등을 다루면서 현대 사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할지 제시한다.

이 주제들을 다룬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이슬라로서 아니라(물론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겠지만), 저자가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들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낙태'의 경우, 성경 본문으로 기준을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낙태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슬라'를 다루는 4부로 쉽게 넘어가려는 독자를 만류한다. 저자의 권면을 따라 처음부터 천천히 읽고 나면, 왜 저자가 뒷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것을 말렸는지 알게 된다.

4부 앞부분에 나오는 '독자를 위한 조언'을 소개한다. "이 책의 1-3부를 먼저 읽기 전에는 4부를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서 제시되는 규범적 판단은, 오직 앞에서 다룬 신약성경 내용 분석과 그것을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권위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방법들에 비추어 읽히도록 의도된 것이다(4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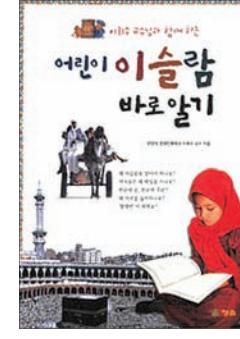
이렇게 리처드 헤이스는 현대를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혹은 배경의 차이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찾고 어떤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할지 제시한다. 물론 자신이 제시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약점도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저자가 제시한 이런 틀과 적용점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

이진용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이희수  
청솔 | 192쪽

이희수 교수가 쓴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는 조선일보 좋은 책 선정도서, '어린이 도서연구회', '우리 독서운동본부', '책읽는교육사회실천회의' 주천도서로 분별력이 없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의 90쪽에는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라는 표현은 이슬람 사람들이 싸움을 좋아하고 강제로 이슬람을 전파했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만들어 낸 말일뿐입니다. 꾸란에는 힘에 의한 이슬람 전파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꾸란에서는 '종교에 어떤 강요도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라는 말이 서양 사람들이 적개심으로 만들어 낸 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이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덮으려고 어린아이들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이슬람도 처음에 메카에서 포교하여 교세를 구축하기 위해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꾸란 2:256)라며 유화적이고 관용적인 평화정책을 펴다. 그러나 나중에 메디나로 옮겨 자체 세력이 커지고 강한 정치·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는 계시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계시로 바뀌게 되었다.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라"(꾸란 9:5), "무슬림들이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라"(꾸란 9:123, 김용

선 역). 이런 계시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소위 '칼의 계시'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의 계시는 후에 칼의 계시들로 취소가 된 것이다. 먼저 계시가 나중 계시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슬람 특유의 '만수크 교리'다. 인터넷 주소창에서 'thequran.com'을 치고 들어가 'Read The Quran'을 클릭, 4 가지 번역본을 선택한 다음 앞서 언급한 꾸란 2:256절을 치고 'Display'를 클릭하면 붉은 테두리로 두른 해당 구절이 뜨면서 "이 구절은 9:5절에 의해 취소된 구절임"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슬람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가 모를리 없지만,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이같은 거짓 속임수의 말을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적인 이슬람의 계시를 지적 받을 때마다 이미 취소되어 효력이 없어진 꾸란 2:256절을 인용하면서 평화의 종교라고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의 많은 신자들은 이 구절의 취소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는 경우도 이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

이슬람의 태동 시부터 오늘날까지, 이슬람의 역사와 경전인 꾸란을 읽어본 사람은 이슬람이 결코 평화의 종교라고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은 평화와 사랑과 용서의 종교이다"라고 말한다. 이슬람의 폭력성을 감추고 점증하고 있는 테러행위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슬로건은 특히 9.11 테러 이후에 강화된 전적으로 이슬람의 홍보 전략에서 온 것이다.

이런 책들이야말로 이슬람의 어린이용 포교전략에서 출판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먼 헛낱을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어린 영혼들을 잡기 위해 전략적인 포석으로 출판되어 읽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종교를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라면 무언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왜곡된 지식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 가르쳐 경계시켜야 한다.

이지희 기자

##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 유전자 생약치료

200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전화 1-877-580-2424 삼우수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이사의 명가(名家)

### 가주 삼성 통운(주)

####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이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리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가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이연이 균형세포의 당대사와 체티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심이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체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 임상 2기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체부 지원으로 수학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FDA 인증

Special Price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3병 \$249 6병 \$474

+ tax + tax + tax

+ tax + tax + tax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한국에서 미국으로

###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전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한국 배너 스텐트포함 \$65 (문자포함 세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원은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과과 소평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깃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용, 각종 인쇄, 현수막, 각본, 홍보문서,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등 전문

junim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세가지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일

◆ 전도용디자인 ◆

◆ 불편 ◆

◆ 전도엽서 ◆

◆ 전도엽서 ◆

◆ 전도용품 세일 ◆

## Gay Marriage Ruling's Legal Impact on Churches, Pastors, and Lay People "Uncertain"

BY CHRISTINE KIM

The Pacific Justice Institute (PJI), a non-profit legal organization that specializes in defending religious freedom, held a seminar at LA Full Gospel Church on Monday to discuss the ramifications tha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gay marriage will have on churches and Christians.

Brad Dacus, president and founder of PJI,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s that will be felt by Christian colleges, churches, families, and businesses. He also discussed the ways in which church bylaws should be amended for greater legal protection in case of litigation.

"Religious freedom has never been more threatened in U.S. history," he claimed, and said that in all settings -- schools, families, businesses, and churches -- there is an uncertainty as to how legal issues will pan out.

Dacus says that the first line of defense are the Christian colleges that could potentially lose their tax-exempt status for being considered as discriminatory against LGBT students, similar to the way Bob Jones University lost its tax-exempt status for banning interracial marriages in 1983. Churches could also lose their tax-exempt status, but that would likely not happen until Christian institutions' tax-exempt statuses are taken away first, "for political reasons," Dacus added.

Families may also be impacted by the ruling as well, Dacus said, in that a parent's failure to embrace the child's sexuality can be considered 'negligence,' resulting in the parent's loss of custody over the child.

"If CPS (Child Protective Services) social workers try to take your children, please,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Dacus said. "We will protect your children from being taken."

The ruling will also affect what is taught in public schools, he continued. Teachers who favor same-sex marriages are now "empowered to promote same-sex marriage," and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public schools will likely include lessons on the contributions made by LGBT individuals. Dacus encouraged parents who are concerned about this to sign opt-out forms which would allow their children to be excused from sitting in during such lesson plans.

Dacus also discussed the ways businesses have been impacted. On the one hand, he mentioned the cases of a flower shop, a bakery, and a photographer refusing service to same-sex weddings, and that all of these businesses have lost their cas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Christian businesses that have won lawsuits, including a Christian T-shirt business in Kentucky that refused to print gay pride festival shirts that was vindicated by the court. The court ruled that the law protects the company's decision not to print shirts with speech that contradicts the company's beliefs, under the First Amendment.

Hobby Lobby is another Christian business that won a lawsuit. It challenged the contraceptive coverage requirement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claiming that the requirement went against their Christian principles. Dacus explained that some of the major factors that led to Hobby Lobby's victory was that it was a closely-held business, and that they had protection under the federal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 Though a similar result could apply to other closely held businesses, Dacus said, results could also differ depending on the state by state statutes on religious freedom.

"We don't know how [future cases will] pan out," Dacus said. "That's why we have to be cautious."



Pastors and lay members attended the recent seminar hosted by PJI, during which Brad Dacus, the president of PJI, discussed the ways the Supreme Court ruling on gay marriage could impact their churches, schools, families, and businesses.

## Korean Americans Spearhead Prayer Movement for North Korea

BY RACHAEL LEE

senior pastor of Oriental Mission Church. "But this is the first major prayer movement spearheaded by second generation Koreans who are now inviting first generation Koreans to join them."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organizations will be featured during the workshop sessions, including REAH International, Samaritan's Purse, the Eugene Bell Foundation, Hope for Orphans, and those who have taught a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Workshops and the evening prayer session will take place in English, while the morning prayer session will be bilingual in English and Korean.

"Second and third generation Koreans -- we don't know the details of the politics and history regarding North Korea," said Grace Yoo, community organizer and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Korean American Coalition. "We're hoping the event could be a way to spread awareness about North Korea and for Korean Americans to become more informed."

"This is a unique event because first generation Koreans have often had prayer meetings regarding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aid Reverend Jim-Bob Park, the

An all-day event to spread awareness about and pray for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in Korea is to take place in Los Angeles on August 15, which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and the 70th year since the beginnings of the country's division into North and South Koreas.

The event, called 'Adopt815,' comprises of three parts: an early morning prayer at Koreatown Galleria from 6:30 to 8 AM; an afternoon of workshop sessions from 2 to 5 PM; and an evening worship and prayer meeting at Oriental Mission Church from 7 to 9 PM. Locations for the workshop sessions will be determined after the number of attendees is determined, and will be posted on the event website, organizers said.

"This is a unique event because first generation Koreans have often had prayer meetings regarding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aid Reverend Jim-Bob Park, the

##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IV: Building Confidence in Identity – Generationally and Ethnically



Sunhee Son Robinson (left) and Benjamin Robinson (right) are lead pastors of Living Hope Christian Center in Emeryville, CA.

BY RACHAEL LEE

thing that God has placed in both the younger and the older generations that we need in the church. No one generation can come to maturity without receiving wisdom from and being accountable to the previous, older generation, and being responsible for the generation to come.

The primary way we try to attack the tendency to isolate generationally is by teaching. We have been communicating a vision of trans-generational discipleship. A church can be multi-generational, but it's not trans-generational until something is being transferr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other.

An easy way that the younger generation can have a rapport with the older is through technological inclusion. "I can teach you how to set up your computer, or use your smartphone." "I can help change the time on your microwave." "Would you like to use my computer to check your email?" These are some things that the younger can help the older genera-

tion with.

We also try to build confidence in the older generation in what they have to offer, by telling them that their experiences and stories, their understanding of history, are so valuable to the younger generation, and we continually encourage them to share their wisdom with the younger people.

*Q: What are some ways Living Hope has tried to bridge gaps between ethnic groups, especially for those members who aren't able to speak English? Do you offer translations for sermons, for example?*

*A: We actually don't provide translation – it always shocks me to see how some of the members in our church are able to understand.*

My wife and I once visited a Korean couple who have been attending our church for about a year and a half. The wife of the couple doesn't speak English very well. So my wife, who is Korean, asked her, "You don't speak English very well – how do you handle Benjamin's preaching?" and the woman responded, "It's amazing – I understand more when I'm listening to him preaching, than any other time when I'm listening to English. I feel the presence of God, even when I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God ministers to me through him."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s a trans-cultural reality. When the presence of the living God is so real, it goes through any culture.

In terms of bridging the gap between ethnic groups, we actually try to celebrate the diversity in our church and make sure that everyone of any background would feel welcome. So our church is devoid

of any sense of ethnic predominance.

Now there are a lot of churches that are multi-ethnic, but some of them actually tend to be monocultural. There are different ethnic groups but they may feel that they have to act in a certain way, talk a certain way, or dress a certain way. The cultural contributions of the ethnic groups are not honored, and they are simply assimilated into the dominant culture of the house.

We want people to be who they are at Living Hope. We want people who are ghetto to be ghetto, and we want immigrants who just immigrated from Central or South America or from Africa to be able to celebrate their cultures. We like to celebrate the diversity as best we can.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s a transcultural reality. When the presence of the living God is so real, it goes through any culture."*

*Q: We've been interviewing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over the past few months, and many Korean immigrant churches face issues that arise from being a multi-generational church, and even from being a multi-cultural church since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have different cultures as well. For your fellow pastor colleagues, what kind of encouragement would you share?*

*A: Man, I would say, hang in there – it's gonna get better. The Lord is guiding this thing. I was*

involved in a Korean church when I was in college, and I also have several Korean American friends who are pastoring as well, so I'm familiar with the struggles.

The challenge for the Korean-American church is that it's only one generation old. If you go back 50 years, there were hardly any Korean American churches. The English-speaking Korean American church is still new, and it's still trying to figure out its identity; it hasn't been around long enough to understand its cultural distinctness, or what it has to offer to the church as a whole. So I think the Korean American church just needs time and space to develop its sense of identity and beauty, because there's a powerful contribution to be made from the Korean American church.

I would also encourage my colleagues who are pastoring to hang in there because there's a transient model of discipleship that has been prevailing and this is what I think is turning away the younger generation. It's a western church problem. When the pastors are transient – when they just come and go – the kids are handed off from one pastor to the next, to the next, and the next, and there's no real discipleship with them. A lot of these kids have had teachers, but not spiritual fathers – no one's committed to their lives. We need pastors to reject the concept of seeing children's ministry or youth ministry as a stepping stone, and say to the kids, "I'm gonna walk with you and share life with you."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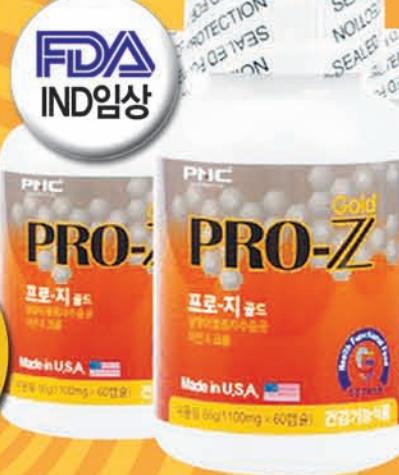
*Q: As a multi-generational church, how has Living Hope tried to tackle barriers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A: We believe that there is some-*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 PRO-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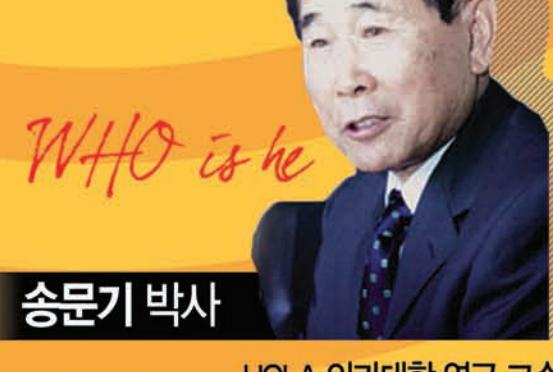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자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